

# “해남 화력발전소 기업도시 해 끼친다”

## 박지사, 건립위치 선정 의문 제기 “신중히 추진돼야”

해남군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과 관련, 박준영 전남지사가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 최대 현안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지사는 13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대규모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화력발전소

는 위치 선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남의 화력발전소 예정지는 바람이 많이 불고 인근이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예정 부지”라며 건립 위치 선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뜰이나 힘들게 진행되는 J프로젝트가 화력발전소 건립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남군 화력발전소는 화원면 후산리 산 66번지 250만㎡ 부지에 건설되며 7조 6000억원의 들어 2단계로 나눠 2018년까지 건설된다.

박 지사는 나아가 “앞으로 화력발전소처럼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안 사업의 경우 시·군에서 추진할 때 반드시 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시했다.

그는 이어 화력발전소의 입지 선정

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전남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함께 주문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 안팎에서는 박지사의 이번 발언으로 해남군을 비롯, 고흥이 추진중인 나로도 화력발전소 건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해남군은 중국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받아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며 해남과 신안 지역 주민들은 저지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킬러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겠다”

## 김중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무원이자 콘텐츠 전문가로서 광주문화수도 조성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광주를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데 커다란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 공직경험을 충분히 살려 광주시민의 의지와 열망을 중앙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고 소통함으로써, 다소 지지부진한 문화전당 건설사업이 제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문화수도는 추진단, 추진단장이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광주시, 추진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김중을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1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신입단장으로 취임했다. 광주를 한국의 문화수도이자 아시아 문화의 허브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될 김 단장은 하드웨어가 충분히 구축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신입단장과 일문일답.

-사업추진 방향을 생각해 둔 것이 있는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예,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는데 일차적인 초점을 맞출 생각이다. 앞으로 남은 것은 콘텐츠다. 전당만 있다고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광주가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한 문화도시로서 성공하려면 킬러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콘텐츠를 적극

개발, 광주가 문화도시로서의 품모를 갖추도록 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기존 사업들을 어떻게 평가하나.

▲새로 부임해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광주 문화수도의 모델로 생각하는 도시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들은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발전해왔다.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조성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기 때문이다. 광주 역시 광주만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신임 단장으로서 포부를 말해달라.

▲부안 출신이지만, 문공부 공

# 광주·전남 5000억 규모 방사선 과학원 추진

## 도, 정부에 설립안 제출 예정...5개 연구기관 집적

원전지역 안전사고에 대비해 5000억 원 규모의 방사선 연구 전문기관을 광주·전남에 설립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원전 지역과 주변국 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방사선 안전 연구 전문기관 ‘국가 방사선안전 과학원’ 설립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유치하기 위해 했던 서남권 원자력과학원 사업을 방사선 관련 연구개발 시설로 확대한 것이다.

총 사업비 4980억원 규모의 국가 방사선안전 과학원 설립안은 총 5개

연구기관을 집적했다.

이곳에 들어설 연구기관은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센터와 ▲방사선안전 교육훈련센터 ▲방사선안전산업연구소 ▲방사선안전과학연구소 ▲생활방사선연구소 등이다.

국가 방사선비상 진료센터는 방사선 재난 발생시 비상진료와 진료 종사자 훈련, 방사선 의약품 임상연구 등을, 방사선안전 교육훈련센터는 비상진료요원·전문가 교육과 대국민 안전교육을 맡는다.

방사선안전 산업연구소는 방사

선 계측기, 차폐제, 위험경보시스템 개발, 방사선안전 의학연구센터는 방사선 최소 이용 광·융합 의기술 연구를, 생활방사선 연구센터는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분석 등을 하게 된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국가 방사선안전 과학원 기획보고서를 작성한 뒤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서 울대 융역팀에 이달 안에 제출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도 사업제안서를 내고 총선·대전 공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박지사 시·군 순방 총선 이후로 연기

전남도는 박준영 지사의 시·군 순방행사가인 도민과의 대화’를 잠시 중단하고 총선 이후로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도민과의 대화는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27일 진도군에서 시작한 지 10일 장흥군 등 지금까지 5개 시·군에서 진행했다.

전남도는 그러나 4·11 총선에 따른 선거법 제약 등으로 인해 도민과의 대화를 잠시 중단했다가 총선이 끝난 뒤인 4월 13일 목포시를 시작으로 나머지 지역의 순방 행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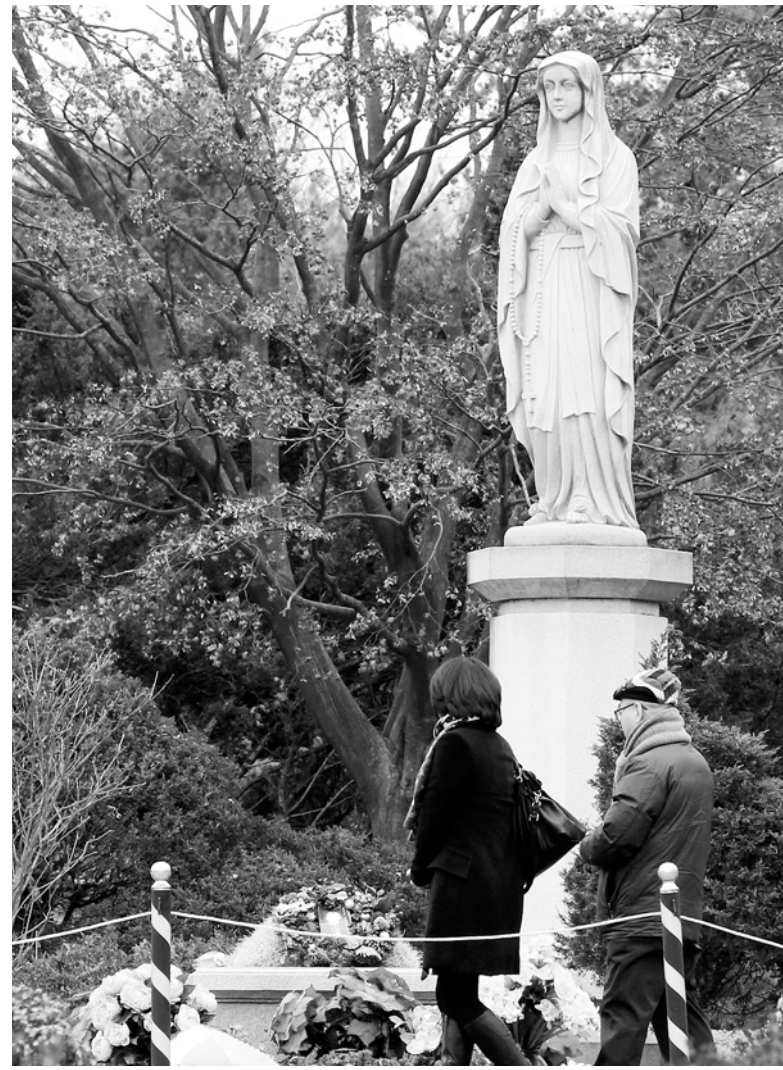
전남도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먼저 접수받는 등 시·군 순방 형식이 바뀌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총선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민과의 대화를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 발 농업 직불 보조금 1인당 200만원 제한

콩, 밀 등 밭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밭 농업 보조금이 올해부터 1인당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3일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밭 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 밭 면적을 농업인 5만㎡(5ha),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20만㎡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3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3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3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다.

# 사적연금 없으면 은퇴후 파산확률 40%

국민연금에만 노후소득을 기대면 파산할 확률이 40%를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은행 조사분석부 김양재 팀장은 13일 ‘고령화와 은퇴자산의 적정성’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은퇴 전 소득의 40%를 받더라도 파산 확률은 41.4%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소비지출 규모가 클수록, 은퇴 전 축적한 자산의 투자성과가 낮거나 투자 위험이 클수록, 기대수명(생존기간)이 길수록 파산 확률이 높아진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특히 ‘배이비부머’ 세대가 현재의 소비지출 수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고 하면 파산 확률은 85%를 넘는 것으로 계산됐다.

그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노후 준비 상품에 일찍 가입해 은퇴 후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 생생 자치

## 전남도 ‘낫술 금지령’ 시·군에 공문

### 박준영 지사 “직속 상관에도 책임 물을 것”

박준영 전남지사가 낫술 금지령을 내렸다. 일부 공무원들의 ‘낫술’ 행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박 지사는 13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장 토론회에서 “최근 공무원이 낫술을 먹고 들어오는 바람에 근무도 못하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직무상 중심 때 ‘한 잔만 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지만 공직자인 만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또 토론회에 참석한 실·국장에게 일일이 해당 사례가 있는지를 직접 물어보고 향후 낫술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했다.

박 지사는 나아가 도청을 비롯, 시·군에도 낫술을 삼가도록 공문을

내리는 한편, 도가 수시로 점검에 나서 적발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물론 직속 상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대안 음주 사실이 적발된 시·군에 대한 예산상의 불이익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도청 안팎에서는 “최근 잇따른 기강 해이 사례를 감안, 공직 근무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제14기)

※국가공인등급(특급·1급·2급·3급)

▶모집기간 : 2012년 2월 1일(수) ~ 2012년 3월 5일(토)

▶연수기간 : 2012년 2월 28일(화) ~ 2012년 8월 9일(토)24주 (96시간)

과정명	개강일시	모집인원
3급반	화요일(오전) : 2012년 2월 28일(화) 09:30 목요일(오전) : 2012년 3월 1일(목) 09:30	각25명
2급반	수요일(오후) : 2012년 2월 29일(수) 14:00	25명
특급반	수요일(오전) : 2012년 2월 29일(수) 09:30	25명

▶수업시간 : 오전반 : 09:30 ~ 13:00 • 오후반 : 14:00 ~ 17:30

수료후 특전

- 방과후 학교 한자·한문지도강사 한문학원 개설
- 각 대학 평생교육원·학원·시·구청·복지관 한자지도강사
- 연수과제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시범)지역취득기회

▶수강료 : 350,000원(농협 175375-56-0651371(이중순))

▶수강신청 및 접수처

-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본부
- 문의상담 : ☎ 062)366-9666, 367-8666
- 지도교수 (문의상담) 010-9221-5225(1·특급), 016-9340-6991(2·3급) 011-9937-2729(2급), 011-614-2618(2·3급)

국가공인 자격관리·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국한자학문지도사 연수원 시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 건광관리협회부근)

#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일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대대출 포함)

한도 : KBSI세-80%+a 전세권 한도 : 보증금의-80% (60%)

금리 : 연 3.93%~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540호) 대표 1544-5248 | 담당 010-7112-3135

# 공무원 특별자금

주요의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청서

-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군무원
-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 (무보증/무담보/무조회)
- ◆ 대출금리 : 1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 대출기간 : 1년~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 과대대출 : 연체(등금미납)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가격 전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전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전순위 - 연 5%~7.5%(은행금율)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부 제 642호) 대표 1544-9430 | 담당 010-5554-2100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를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기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 수술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고질병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증-4738호